

LG전자, ‘마이크로RGB 에보’ 첫 선 차세대 프리미엄 LCD TV 기준 제시

미리보는 CES 2026

광원 단위로 RGB LED 독립 제어
‘트리플 100% 컬러 커버리지’ 인증
‘3세대 알파11 AI 프로세서’ 탑재

LG전자가 최신 마이크로RGB 기술과 LG 올레드만의 정밀한 광원 제어 기술을 융합해 크게 화질을 높인 ‘LG 마이크로RGB 에보’를 앞세워 차세대 프리미엄 액정표시장치(LCD) TV의 새 기준을 제시한다.

LG전자는 내년 1월 6~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6에서 LG 마이크로RGB 에보(모델명: MRGB95B)를 최초로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마이크로RGB는 LCD TV의 필수 구성요소인 백라이트에 쓰이는 광원의 크기를 초소형으로 줄이고, 기존 백색 대신 적색·녹색·청색 LED를 광원으로 사용해 색상 재현을 극대화하는 기술이다. 얼마나 정밀하게 LED 백라이트를 제어하는지와 RGB의 각기 다른 파장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기술력에 따라 비슷한 기술을 활용하더라도 실제 고객이 경험하는 화질은 달라지게 된다.

LG전자는 마이크로RGB 에보에 13



LG전자는 내년 1월 6~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6에서 LG 마이크로RGB 에보(모델명: MRGB95B)를 최초로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LG전자

년째 글로벌 OLED TV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는 LG 올레드를 통해 축적된 정밀한 광원 제어 기술을 적용해 일반적인 LCD TV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화질을 구현했다. 자발광 화소를 픽셀 단위로 컨트롤하는 올레드 TV의 정교한 기술을 마이크로RGB TV에 적용, RGB LED를 광원 단위로 독립 제어해 생생한 화질을 선사한다.

이를 위해 LG 마이크로RGB 에보에는 2026년형 올레드 TV 신제품 라인업의 프로세서와 동일한 듀얼 AI 엔진 기반의 ‘3세대 알파11 AI 프로세서’가 탑재된다. 업계 유일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전용 화질·음질 AI 프로세서

의 강력한 성능으로, 화면 밝기와 명암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마이크로 디밍 울트라’ 기술을 통해 LCD TV의 한계를 뛰어넘는 화질을 완성했다.

LG 마이크로RGB 에보는 색 정확도 측면에서도 압도적이다. 이 제품은 글로벌 시험·인증기관 인터텍으로부터 ‘트리플 100% 컬러 커버리지’ 인증을 받았다. 방송 표준(BT.2020), 디지털 시네마 표준(DCI-P3), 사진·그래픽 표준(Adobe RGB)을 모두 100% 충족해 고화질 방송과 영화, 사진 및 영상 편집 등 다양한 사용 여건에 최적화된 색감을 재현한다는 의미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삼성전자, 에너지기업 파트너십 강화

“가전 사용자들 전기요금 혜택 제공”

삼성전자가 삼성 가전 사용자들에게 한층 강화된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주요 에너지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확대했다.

삼성전자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전력·에너지 기업 ‘에넬’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 세탁기를 구매한 고객에게 2년간 최대 180KWh의 세탁용 전기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180KWh는 유럽에서 삼성전자 A등급 세탁기를 약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에넬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은 누구나 삼성전자 세탁기를 구입한 뒤 스마트싱스에 연동하면 무료 전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영국 에너지 기업 ‘브리티시 가스’와 함께 삼성전자 제품 구매자 전용 ‘삼성 주말 세이버 고정 요금제’를 출시했다.

이 요금제는 토·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집안 전기요금을 50% 깎아준다.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통해 사용자는 금전적 부담을 낮출 수 있고, 에너지 기업은 전력 수요가 낮은 낮시간으로 전기 사용을 유도해 잉여 전력 활용도를 높이고 전력망 과부하도 막을 수 있다.

/차현정 기자

브리티시 가스의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이 삼성전자 제품을 새로 구매하면 ‘삼성 주말 세이버 고정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가전제품은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냉장고·냉동고, 오븐, 전자레인지, 무선선풍기, 로봇청소기가 해당된다.

삼성전자는 네덜란드 에너지 기업 ‘쿨블루’와도 파트너십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낮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삼성전자 세탁기 사용시 전기요금이 무료인 ‘무료 세탁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9월부터는 건조기 사용시까지 전기요금 무료 혜택을 확대했다.

지난해 7월부터는 미국 에너지 기업 ‘리프’와 협업해 스마트싱스에 연결된 가전의 소비전력을 최적화하는 ‘플렉스 커넥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전력수요가 몰려 전력망이 불안정할 때 스마트싱스 ‘AI 절약모드’를 활용해 자동으로 연결된 가전의 소비전력을 최적화한다.

삼성전자 B2B솔루션팀 박찬우 부사장은 “삼성전자 가전 사용자에게 다양한 전기요금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에너지 파트너십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며 “스마트싱스를 지속 고도화하고 스마트 가전과 연결을 강화해 에너지 효율과 사용자 편의를 동시에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퓨처엠, LFP 양극재 전용 공장 세운다

포항 영일만 산단 공장 건설안 승인
2026년 착공… 2027년 하반기 양산

포스코퓨처엠이 급증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생산에 본격 나선다.

포스코퓨처엠은 15일 이사회를 열고 포항영일만4일반산업단지에 LFP 양극재 전용 공장을 건설하는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2026년 착공해 2027년 하반기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으로, 해당 공장에서 생산되는 LFP 양극재는 전량 ESS용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투자는 2023년 중국 배터리 소재 제조업체 중웨이신소재(CNGR)와 합작 설립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에 대한 추가 투자를 통해 추진된다. 포스코퓨처엠은 이를 시작으로 LFP 양극

재 생산능력을 최대 연 5만 톤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포스코퓨처엠은 지난 8월 CNGR과 CNGR의 한국 자회사 피노(FINO)와 ESS용 LFP 양극재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사업성을 검토해왔다.

LFP배터리는 니켈·코발트·망간(NCM),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등 삼원계 배터리에 비해 출력은 낮지만 가격 경쟁력이 높고 수명이 길어 ESS와 보급형 전기차를 중심으로 활용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ESS용 LFP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요 배터리 기업들은 기존 삼원계 배터리 생산라인을 LFP로 전환하는 등 시장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같은 시장 변화에 따라 포스코퓨처엠은 이번 LFP 전용 공장 투자를 통해 ESS 중심의 신규 수요를 선제적으로

흡수하고 양극재 사업의 제품군과 고객 기반을 동시에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포스코퓨처엠은 초기 시장 진입을 위해 기존 설비 활용에도 나선다. 현재 포항 양극재 공장의 삼원계 NCM 양극재 생산라인 일부를 LFP 생산라인으로 개조해 2026년 말부터 LFP 양극재 공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포스코퓨처엠 관계자는 “전기차와 ESS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고객 요구가 세분화되면서 차세대 양극재 개발을 병행하고 있다”며 “상반기에는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과 함께 LMR 양극재 파일럿 개발을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프리미엄 전기차용 울트라 하이 니켈 양극재와 고전압 미드니켈 양극재 파일럿 개발도 마무리하며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대한항공, 개방형 무인기 플랫폼 기술 연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협약 체결

대한항공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협력해 개방형 무인기 연구를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16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다중 임무장비 운용을 위한 개방형 무인기 플랫폼 기술’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대

한항공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해당 과제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4개월간 협의를 거쳐 나온 결과다.

대한항공은 2029년 5월까지 무인편대기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요소 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한다. 대한항공은 이번 협약으로 임무별 센서와 장비를 모듈화해 장착·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해당 연구개발 예산은 약 193억원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은 이번 협약으로 무인기의 경제성과 작전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개방형 무인기 플랫폼 기술을 적극 개발할 것”이라며 “K-MOSA 기반 개방형 개념을 무인편대기 체계 개발 사업에 적용해 미래 항공 작전의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국방자주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BYD 아토3.

BYD ‘아토 3’, 8개월만에 2600대 판매

보조금 적용시 2000만원 후반대
안전기능·편의 사양 등 기본기 탄탄

BYD코리아의 첫 공식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차(SUV) ‘BYD 아토 3’가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신뢰를 쌓으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아토 3는 11월까지 누적 2617대 판매를 달성하며 8개월여의 짧은 기간 만에 가장 주목받는 전기 SUV 중 하나로 급부상했다.

판매 가격 3150만원인 아토 3와 3330만원인 아토 3 플러스는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적용하면 지역에 따라 2000만원 후반대에도 구매가 가능해 동급의 내연기관 SUV와도 경쟁을 펼칠 수 있을 만큼 매우 합리적인 선택지로 자리 잡았다.

아토 3의 인기 비결은 가격만이 아니다. 합리적인 가격 위에 기술력과 안전성, 주행 감각, 공간 활용, 편의사양 등 전기차의 기본기를 균형 있게 갖췄다.

BYD가 독자 개발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 e-플랫폼 3.0을 기반으로 한 아토 3는 균형 잡힌 주행감, 차급 대비 넓은

실내 공간, 정숙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안전을 전면에 내세워 ‘믿을 수 있는 전기차’라는 인식을 전달하고 있다. BYD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블레이드 배터리를 탑재해 전기차 안전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블레이드 배터리는 관통 테스트와 46톤 트럭 압력 테스트 등 극한 조건에서도 화재나 폭발이 없어 뛰어난 안전성과 내구성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효율성 또한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BYD의 핵심기술이다.

아토 3는 공간 활용 면에서도 차별화된다. 전장 4455mm, 휠베이스 2720mm의 차체를 기반으로 뒷좌석 레그룸 1000mm를 확보했고, 트렁크는 기본 440L, 최대 1340L까지 확장 가능하며 V2L 기능이 제공돼 레저나 캠핑에도 적합하다.

실내는 12.8인치 회전형 디스플레이, 파노라믹 선루프, 고급 소재 시트와 스티치 마감 등 다양한 고급 편의 기능이 기본으로 제공되어, 가격대 대비 품질과 활용도에서 확실한 경쟁우위를 보여준다.

/양성운 기자